



유례없는 장기간·국지성 호우... 진일보한 재난방송 선보여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재난방송을 해오고 있는 KBS가 중부지역 집중호우 상황을 맞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역성 강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형태의 재난방송을 선보이고 있다.

■ 재난방송 위한 24시간 전사적 대응 체계 마련

KBS는 지난달 영남지역 폭우 재난방송에 이어, 지난 1일부터는 중부지역 집중호우 재난방송에 돌입했다. 이튿날인 2일 일요일에는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폭우 상황 해제 시까지 재난방송을 위한 24시간 전사적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 양승동 사장은 “폭우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정보 제공을 최우선으로 신속성과 정확성, 차별성을 보여주는 재난방송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과 인접한 총국에는 인력과 리소스를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KBS는 2일에는 <TV쇼 진품명품>, <전국노래자랑> 등의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총 635분의 뉴스특보를 방송했다.(정시뉴스 포함)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풍수해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한 3일에는 총 565분의 뉴스특보를 이어가는 한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시 내고향> 등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피해 예방과 극복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에도 KBS는 뉴스특보를 상시편성 수준으로 방송한다는 원칙 아래 재난방송을 실시해오고 있다.



■ 재난정보의 입체적 구현과 도달 극대화에 최선

KBS는 이번 집중호우 재난방송의 경우 신속·정확·차별성을 기조로 하되,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역점을 두고 보다 입체적이고 분석적인 재난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계차와 MNG 등을 활용한 현장 정보는 물론 각 지역의 CCTV와 지리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재 기관 연결과 전문가 출연 등을 통한 분석 확대로 재난정보의 효용성을 높여야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BS는 향후 재난방송의 지향점이 이와 같은 재난정보 확충과 도달 극대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지역성 강화 및 시청자 참여 돋보여

무엇보다 이번 재난방송에서 돋보이는 특징은 지역성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폭우가 집중된 충북과 강원지역을 담당하는 청주방송총국과 춘천방송총국이 수시로 자체 특보를 실행한 것은 물론이고, 본사의 뉴스 특보를 여러 지역총국들이 일정 시간씩 나누어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 릴레이 특보방송을 선보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피해 지역의 중계차와 MNG, 방재 기관과 전문가 출연, 피해 지역 주민 연결 등을 담아내 전국에 방송함으로써 재난피해와 정보에 대한 확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KBS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총국에 인력과 장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스튜디오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지난 3일 KBS 재난방송센터를 방문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적 재난 발생 시에는 지역총국 단위에서 총괄 대응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집중호우에서 KBS가 지역총국을 재난거점방송국으로 운영해 자체 뉴스특보를 편성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시청자 제보 영상 활용 등 시청자 참여가 강화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KBS는 제보 영상을 재난방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사각각 변화는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방재 기관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됐다.



한편 양승동 사장은 지난 3일 재난방송 상황 점검을 위해 KBS를 방문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재난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정보 전달인데, 방재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하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방통위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 공동 노력으로 KBS의 경쟁력과 공영성 높일 것”

KBS 노사, ‘미래발전노사공동위원회’ 운영 합의

KBS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공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KBS는 지난달 31일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와 ‘미래발전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KBS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위원회 출범... 외부제도분과·내부제도분과 운영

‘미래발전노사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크게 수신료 현실화, 방송법 개정 등 대외적 대응 방안을 다루는 ‘외부제도분과’와 성과연봉제 도입, 연차제도 개선 등 내부제도 혁신을 다루는 ‘내부제도분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 의장은 임병걸 KBS 부사장과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 수석 부분부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으며 운영 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재정 안정과 지속 가능한 KBS... 변화 위해 함께 노력하자”

양승동 사장은 지난달 31일 KBS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위원회 출범 협약식에서 “재정 안정과 지속 가능한 KBS를 만들기 위해 수신료와 방송법 개정 등 외부제도 개선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 내부제도 개선은 혁신을 위한 양 날개와 같다”며, “노사가 지혜와 창의, 역지사지의 자세로 과감한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KBS본부 유재우 본부장은 “어려운 결정을 통해 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최선을 다해 같이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고강도 ‘경영혁신안’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

이번 공동위원회 출범은 지난달 1일 양승동 사장이 조회사를 통해 밝혔던 ‘경영혁신안’의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사장은 ▲인건비 비중 축소 ▲불합리한 제도 개선 ▲자회사 성장전략 마련 ▲수신료 현실화 추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해소 등 5가지 혁신 과제를 담은 고강도 경영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속 가능한 공영미디어 모델 구축을 위한 ‘KBS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 출범

지난달 24일 ‘KBS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이 출범했다. KBS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이자 명실상부한 공영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자원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공적재원·미디어 혁신 논의 대응... 지속 가능한 공영미디어 모델 구축

‘KBS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 지난달 24일 부사장 직속으로 신설됐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적 재원과 미디어 혁신 논의에 적극 대응하면서 KBS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KBS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보고서에서 프로젝트팀은 단순한 ‘재정문제 해결’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영미디어 모델 구축’에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성 강화, 경쟁력 확대, 제도적 안정성 확보 등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폭넓은 의견 충실히 수렴... 공영미디어 발전 기틀 마련

프로젝트팀은 출범 직후 공적 책무 확대 계획 수립과 중기 수지 전망 등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KBS에 기대하는 공적 책무를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마련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내 제안을 통해 공영성 강화를 위한 실천 과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설득 논리, 소통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전략과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8.15 광복 75주년 특집 프로그램



잊혀진 항일 유적지 '백두산'에서 숨은 영웅 '재일동포'까지

백두산 항일투쟁사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KBS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항일 투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와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항상 힘을 모아주었던 재일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콘서트 등 8.15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집 다큐멘터리 <백두산, 항일 투쟁사>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항일 무장 투쟁의 근거지이자 수많은 항일 투사들을 길러낸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 땅이 돼버린 이후 대부분의 백두산 항일 유적지는 버려진 채 잡초만 무성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 <백두산, 항일 투쟁사>는 최근에 발굴된 사료와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반영해 항일 운동의 중심지로서 백두산을 새롭게 조망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항일 운동사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항일 운동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는 역사전문 큐레이터 박광일 작가가 프레젠테이터 나서 시청자와 대화하듯 교감하며 백두산의 시공간에 담겨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 여기에서 백두산의 사계와 압록강이 발원하는 대협곡,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원시림 등 그림 같은 절경은 HD 영상에 담겨 더욱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집 <백두산, 항일 투쟁사> 8월 15일(토) 오전 11시 10분 KBS1

특집 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 한복판에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2.8독립선언을 외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잊혀졌던 사람들. 해방 이후에는 모진 차별과 고난 속에서도 조국에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마다 누구보다 앞서서 조국애를 실천해온 사람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숨은 영웅 '재일동포'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다각적인 영상 구성을 통해 입체감 있게 조명하는 특집 콘서트다.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행사 등에 참여한 배우 박성웅이 단독 MC를 맡았고, 재일동포 3세 출신 국악인 민영치가 KBS관현악단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재일동포의 삶을 다룬 영화 <용달이네 고향집>의 배우 이정은은 프레젠테이터로 출연해 모국을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밖에도 가수 인순이, 박정현, 풀킴, 김호중, 포레스텔라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 특집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8월 15일(토) 오후 5시 30분 KBS1

KBS, 성폭력 대응 대폭 강화... 2차 가해도 징계 대상

언론사 최초로 '성평등기본규정'을 제정하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섰던 KBS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시효를 늘리고 2차 가해도 징계하는 등 성폭력 대응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KBS성평등센터는 지난달 21일 과반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 동의를 얻어 성평등기본



규정의 제7장 보칙을 22일부터 시행했다. 제7장 보칙은 성희롱·성폭력 징계 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차 가해'와 조사 불응,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성평등센터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채용할 수 없다는 채용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 이윤상 성평등센터장은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장 어렵게 했던 2차 피해, 짧은 징계 시효 때문에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조직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모여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크린에서 만난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코리아>

<다큐 인사이드 -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코리아> (이하 모던코리아)를 스크린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기획전이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명동역 CGV에서 열렸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제별로 엮은 스페셜 포커스 'KBS 콜렉션: 익숙한 미디어의 낯선 도전' 6편 전편이 서울 장기상영회(전주국제영화제와 CGV 아트하우스 공동 진행)를 통해 극장에서 개봉된 것. <모던코리아>는 그동안 KBS가 축적해온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 영상을 활용해 현대사를 재구성한 다큐멘터리로,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바 있다.



'어린이 뉴스 뚜두' 어린이 기자단 위촉식

<TV 유치원>의 새 코너 '어린이 뉴스 뚜두'가 어린이 기자단을 선발하고 지난달 27일 위촉식을 가졌다. '어린이 뉴스 뚜두'는 인기 키즈 유튜버 '뚜아, 뚜지'를 메인 앵커로 발탁해 어린이의 시선에서 사회 이슈를 다루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 대상 뉴스다. <TV 유치원>은 어린이 시청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해 전국에서 6~8세의 남녀 어린이 기자 11명을 선발했다. 양승동 사장은 이날 위촉식에 참석해 어린이 기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고, <뉴스9>의 이소정 앵커와 '어린이 뉴스 뚜두'의 앵커 뚜아, 뚜지가 환영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양 사장은 "어린이 기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한다며 열심히 취재하고 활약하는 KBS 가족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 기자단의 활약상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KBS 2TV <TV 유치원>에서 만날 수 있다.



KBS, <시사기획 창> 광복절 특집 '위안부' 2부작 영화화

KBS가 KBS미디어, 영화사 <커넥트픽처스>와 함께 버마(현 미얀마)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심문보고서 제49호(가제)>를 제작한다. 영화 <심문보고서 제49호(가제)>는 2018년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된 <시사기획 창 - '위안부'> 2부작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석재 기자가 메가폰을 잡고 내년 8월 개봉을 목표로 촬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목! 이 프로그램



한 번 다녀왔습니다 시청률 35% 돌파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최근 시청률 35%를 돌파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입증하고 있다. 매주 주말 밤 안방극장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의 인기 요인을 분석해봤다.

♥ 공감가는 스토리 속 눈물짓게 만드는 '가족애'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이혼'이라는 다소 무거운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이혼이라는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며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다. 극중 송영달(천호진 분)이 아들 송준선(오대환 분)의 사업 자금을 몰래 대주는 장면이나 장옥분(차화연 분)이 딸 송나희(이민정 분)의 유산 사실을 알고 위로하는 모습에서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가족애'가 진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남의 일 같지 않은 스토리에 시청자들은 크게 공감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시청자들의 호응은 고스란히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방송에서 송영달과 송영숙(이정은 분) 남매의 애뜻한 재회가 그려지며 시청자들의 눈물샘까지 자극한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앞으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쏟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웃음 짓게 만드는 로맨스도 한몫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는 바로 로맨스. 장옥자(백지원 분) - 양치수(안길강 분)의 중년 로맨스와 이혼 후 비밀연애를 시작한 송나희(이민정 분) - 윤규진(이상엽 분)의 로맨스 그리고 송다희(이초희 분) - 윤재석(이상인 분) 사돈 커플의 풋풋한 로맨스까지. 이들의 연애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메말랐던 사랑의 감정을 일깨우며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흠집을 데 없는 배우들의 연기는 기본. 다양한 색깔의 로맨스를 만들어내는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여기에 다 이들의 일상 모습들을 담백하게 포착해내는 연출은 리얼리티를 높이며 시청자들을 흠뻑 빠져들게 하고 있다.

▶ 매주 토~일요일 저녁 7시 55분 **KBS**

뉴 페이스

무더위에 지친 밤 설레임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그녀

설레는 밤

박소현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쿨FM <설레는 밤>의 새 DJ로 활약 중인 박소현 아나운서. 안정된 진행 능력을 선보이며 무더위에 지친 청취자들에게 설레임으로 다가가는 '꿀잠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녀를 KBS 사보가 만났다.

Q 지난 3월까지 쿨FM <상쾌한 아침, 박소현입니다>를 진행했다. 이번에 심야 시간 DJ 맡은 소감은?

A DJ가 처음은 아니지만 생방은 처음이라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을 처음 맡았을 때처럼 떨리고 설렌다. 특히 신입사원 시절 <유지원의 옥탑방 라디오>를 즐겨 들으며 유지원 선배처럼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는데, 신기하게도 후속 프로그램 격인 <설레는 밤>을 맡게 됐다. 꿈이 이뤄진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다.

Q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A 게임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평소에도 퇴근하고 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배틀 그라운드 등 게임을 즐기는데, e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콘텐츠가 생긴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다.

Q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자신의 강점은?

A 내 성격이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친구들 고민 상담

을 잘해주는데, 라디오에서도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자신 있다.

Q <설레는 밤>만의 매력은?

A 밤늦은 시간이지만 생방송을 한다. 청취자들과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설레는 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다. 그리고 '여보세요? 듣고 있어?'라는 새로운 코너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통화하듯이 들려주는 코너다. 사연들을 받아 보면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아 저절로 감정이입이 된다. 마치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듯 간질간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 코너가 기대된다.

Q 앞으로 포부는?

A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일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잠이 안 오는 분들... 외롭지 않게 친구처럼 옆에 있어 드리겠다. 청취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DJ가 되겠다.

▶ 매일 밤 12시 **KBS CoolFM** (수도권 89.1MHz)